

## 복음으로 하나되다

### 에베소서 4:13 - 16

침례와 성찬은 교단마다 형식은 다를 수 있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현재까지 나의 삶이 죄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겠다는 의지와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 복음으로 하나되다

이전에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주인을 하나님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구원을 얻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체들로 교회에서 하나 되어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세상의 가치관과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번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도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죄의 권세를 모두 이기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걷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세상을 등지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때 머리가신 그리스도에 어울리는 지체로 자랄 것입니다. 섬김의 핵심은 용서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 우리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같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더 섬기고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